

에너지 브리프¹

2026년 9월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전기요금은 오랫동안 전국 어디에서나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어 왔다. 2026년 8월 26일 공청회에서 공개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은 이 원칙에 처음으로 예외를 두는 개편이다. 산업용 전력에 ‘지역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하고, 송전비용·전력자급률·균형성장이라는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전국을 11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에 따라 최대 18 원/kWh, 산업용 요금 기준으로 최대 10% 수준을 인하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며,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고는 개편의 내용을 정리하고 주요국 사례와 비교한 뒤, 제도가 자리 잡기 위해 앞으로 확정해야 할 사항을 검토한다. 논지는 세 가지다. 첫째, 이번 개편은 소매요금 체계의 변화이지만 그 재원과 작동 조건은 도매 전력시장의 지역별 가격제와 연계되어 있어 두 제도를 함께 보아야 한다. 둘째, 세 가지 산정기준은 서로 다른 정책목표에 대응하며 적절한 지역 단위와 부담 주체, 조정 주기도 각각 다르다. 셋째, 따라서 제도의 성패는 시행 여부보다 시행 이후의 평가와 조정 체계를 어떻게 마련하는가에 달려 있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yeonjei@seoultech.ac.kr)

논의의 배경

우리나라 전력수급의 지역 간 불균형은 오래된 문제다. 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발전설비는 비수도권에 입지해 있어 수도권 수요의 약 40%를 비수도권에서 공급하고 있다. 그 결과 장거리 송전이 불가피하고 이를 뒷받침할 송전망의 건설과 운영에 상당한 비용이 든다. 더구나 입지 갈등과 수용성 문제로 송전선로 건설이 지연되면서, 비수도권에 전력 공급 여력이 있어도 수도권으로 보내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은 그동안 주로 공급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송전망을 늘리고 계통 운영을 정교하게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전국 단일요금 체계에서는 수요가 어디에 입지하든 전기요금이 같기 때문에, 수요 스스로 계통 여건이 나은 지역을 선택할 유인이 생기지 않는다. 지역별로 다른 요금을 적용하자는 논의는 이 공백에서 출발한다.

제도적 근거는 이미 마련되어 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5조는 ‘지역별 전기요금’이라는 표제 아래, 전기판매사업자가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구체적인 설계 논의가 이어졌고, 2026년 8월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가 공청회를 열어 설계(안)을 공개하였다.

용어에 관해 한가지 정리가 필요하다. 이 제도는 그동안 ‘지역별 차등요금제’로 불려 왔으나 정부가 사용하는 공식 명칭은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이다. 명칭의 차이는 단순한 표현 문제가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역별 요금 논의가 두 갈래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도매 전력시장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서로 다른 시장가격을

¹ 에너지 브리프 이슈 내용은 주제와 관련한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공식적인 입장과 무관하다.

개편의 주요 내용

지역 구분은 두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먼저 송전망 연결 구조 등 계통 여건을 반영하여 4개 광역권(수도권 남부, 수도권 북부, 중부권, 남부권)으로 나눈다. 전력시장의 수도권-비수도권 구분을 우선 반영하고 그 안에서 송전망 연결 구조를 고려해 다시 세분한 것이다. 다음으로 지방우대지수와 산업위기지역 지정 등 균형발전 여건을 반영하여 4개 권역으로 나눈다. 이 둘을 교차시켜 최종적으로 11개 지역이 만들어진다.

<그림 1>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의 요금 구조와 지역 구분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 기후환경요금 + 연료비 조정요금 + 지역별 조정요금

전국 동일 적용 (현행) 신설 · 지역별 차등

계통 여건 → 4개 광역권

수도권 남부 서울·경기 남부

수도권 북부 서울·경기 북부 / 인천

중부권 강원 / 충청

남부권 경상 / 전라

※ 제주 제외

균형발전 여건 → 4개 권역

① 권역 서울·경기·인천

② 권역 비수도권 광역시 등

③ 권역 기타 비수도권

④ 권역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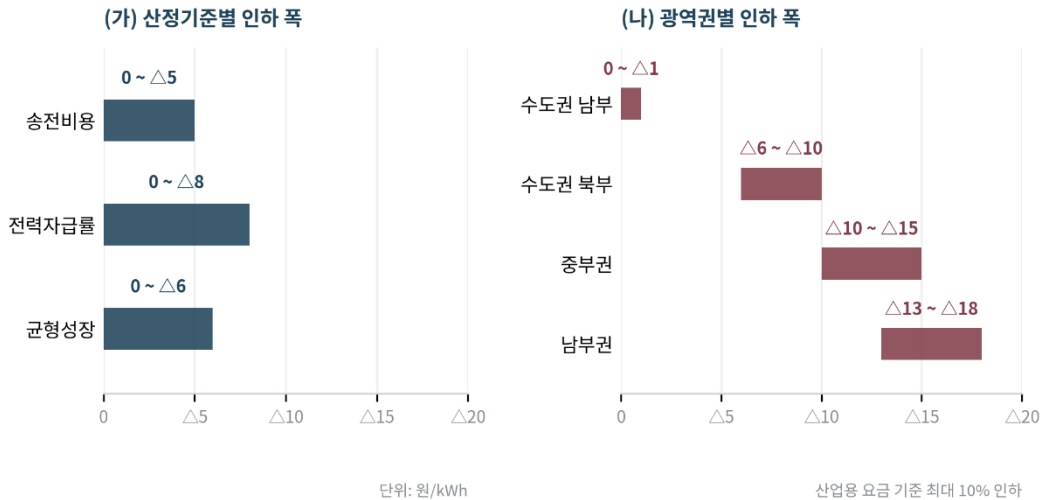
※ 지방우대지수 + 산업위aggi지역 등

→ **11개 지역**

교차 구분

산정기준은 세 가지다. 송전비용은 송전망의 건설·운영 비용을 광역권별 이용 비중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약 0~5원/kWh 범위에서 차이가 난다. 전력자급률은 광역권별 공급 여력을 반영하여 자급률이 높은 지역에 낮은 요금을 적용하며 약 0~8원/kWh다. 균형성장은 인구·재정·산업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해 ④권역에서 ①권역 순으로 낮은 요금을 적용하며 약 0~6원/kWh다. 이를 합산한 광역권별 인하 폭은 수도권 남부가 현행 수준 내지 1원 안팎, 수도권 북부가 최대 10원, 중부권이 최대 15원, 남부권이 최대 18원으로 제시되었다. 산업용 요금 기준으로는 최대 10% 인하에 해당한다(<그림 2> 참조).

<그림 2> 산정기준별·광역권별 요금 인하 폭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전력공사(2026.8.26.) 공청회 발표자료

배전비용은 산정기준에서 제외되었다. 산업용 수요의 상당수가 배전망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소비 집적도가 낮은 농어촌이 도시보다 불리해져 균형성장 취지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이유로 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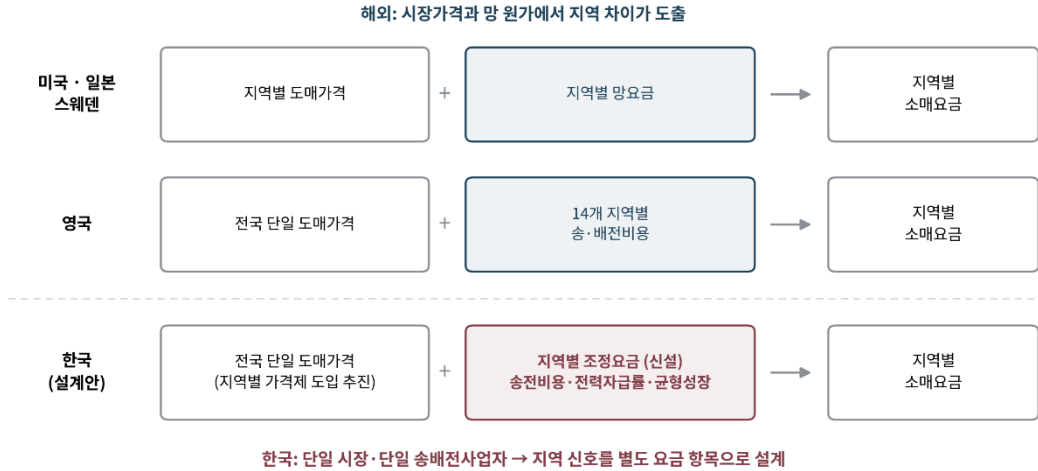
소요 재원은 2조 8,000억원 내외로 전망되며 권역 구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조달 방안은 세 갈래다. 송전비용 세분화에 따른 차이는 한전이 자체 부담하고, 전력자급률과 균형성장에 따른 할인은 전력시장의 지역별 도매가격제 도입 등 시장제도 개선으로 확보되는 전력 구입비용 절감분을 활용하며, 여기에 일부 정부 재정지원을 병행한다는 것이다. 도매시장 개편과 소매요금 개편이 재원을 매개로 연결되어 있음이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는 대목이다.

주요국 사례

주요국의 소매 전기요금에도 지역 차이가 존재한다. 다만 그 차이가 만들어지는 경로는 우리와 다르다. 미국, 일본, 스웨덴은 도매시장에서 지역별 가격이 형성되고 여기에 지역별 망요금이 더해져 소매요금의 지역 차이가 나타난다. 영국은 도매가격이 전국 단일이지만 14개 지역별로 송·배전비용을 달리 반영한다. 지역 신호가 시장가격이나 망 원가라는 기존 구조에서 자연히 도출되고, 지역 균형발전과 같은 정책적 고려는 요금과 별도의 수단으로 다루어진다는 것이 공통점이다(<그림 3> 참조).

스웨덴은 우리 논의에서 자주 인용된다. 북부에 발전이, 남부에 소비가 집중되어 혼잡이 심화되자 2011년 전국을 4개 입찰구역으로 나누었다. 국토 면적이 우리의 약 4.5배임에도 구역을 4개로 한정했고, 행정구역이 아니라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조류를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경계를 설정했다. 단일 송전사업자 체제이면서도 송전요금은 지역별로 구분해 적용한다. 요금이 낮은 북부에서 철강 기업의 전기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등 입지 효과도 관찰되었다. 반대 방향의 사례도 있다. 영국은 3년에 걸친 전력시장 개편 검토(REMA) 끝에 2025년 7월 구역별 도매가격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지역 신호는 송전망 이용요금 체계의 개편으로 주기로 하였다. 지역 신호를 도매가격으로 줄 것인지 망요금으로 줄 것인지가 여전히 열린 선택지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림 3> 지역 요금신호가 형성되는 경로의 비교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전력공사(2026.8.26.) 공청회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우리의 출발 조건은 이들과 다르다. 단일 전력시장, 단일 송배전사업자 체제에서는 지역별 가격이나 지역별 망요금이 저절로 형성되지 않는다. 지역 신호를 주려면 그것을 별도로 설계해 요금 항목에 담아야 한다. 이번 설계(안)이 ‘지역별 조정요금’이라는 신설 항목을 택한 것은 이러한 조건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다만 신호가 구조에서 도출되지 않고 설계되는 만큼, 그 항목이 무엇을 반영한 것인지를 제도 스스로 밝혀야 하는 과제가 함께 따라온다.

평가와 향후 과제

(1) 세 가지 산정기준과 정책목표의 정렬

이번 설계(안)의 세 가지 산정기준은 서로 다른 목표에 대응한다. 송전비용은 망 비용을 이용 정도에 따라 배분하는 원가 반영 요소이고, 전력자급률은 수요를 공급 여력이 있는 지역으로 옮기려는 유인 요소이며, 균형성장은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려는 정책적 이전 요소다. 세 가지 모두 정당한 목표이며, 지역 간 수급 불균형과 산업 입지, 지역 균형발전이 실제로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함께 추구하는 것 자체를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목표마다 적절한 지역 단위와 부담 주체, 그리고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다르다(<표 1> 참조). 송전비용은 계통 구조에 따라 정해지고 망 투자에 따라 완만히 변한다. 전력자급률은 수급 여건에 따라 정해지고 발전설비 준공과 수요 변동에 따라 비교적 빠르게 변한다. 균형성장은 행정구역과 사회경제 지표에 따라 정해지며 지방우대지수나 산업위기지역 지정과 같은 정책 결정에 연동된다. 지역 구분이 계통 기준 4개 광역권과 균형발전 기준 4개 권역의 교차로 만들어진 것 자체가, 하나의 지역 구분으로는 세 목표를 함께 담기 어려웠다는 사정을 보여준다.

<표 1> 세 가지 산정기준의 성격 비교

구분	송전비용	전력자급률	균형성장
정책목표	망 비용의 정확한 배분	수요의 입지 이전	지역 간 격차 완화
성격	원가 반영	유인·신호	정책적 이전
적정 지역 단위	계통 구조	수급·계통 권역	행정구역·사회경제 지표
부담 주체	요금 내 재배분 (총액 중립)	도매 효율화 재원	도매 효율화 재원 + 재정지원
변동 요인	망 투자	수급 여건 변화	정책지표 개정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전력공사(2026.8.26.) 공청회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러한 차이는 이미 설계(안) 안에 나타나 있다. 재원 조달 방안에서 송전비용 세분화는 한전 자체 부담으로, 전력자급률과 균형성장 할인은 도매시장 효율화 재원과 재정지원으로 구분되어 있다. 전자는 요금 내 재배분이어서 총액이 중립적인 반면 후자는 순 인하이므로 외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배전비용을 제외한 사유에서도 같은 긴장이 드러난다. 원가주의에 따르면 반영해야 할 비용 요소를 균형성장 취지와 충돌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외하였는데, 이는 목표 간 상충이 실제로 발생했고 그 해법으로 원가 요소의 배제를 택했다는 뜻이다.

정책목표의 수만큼 독립적인 정책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은 오래된 명제다(Tinbergen, 1952). 세 요소가 하나의 항목으로 합산되어 하나의 숫자로 제시되면 몇 가지 어려움이 생긴다. 첫째, 사후 평가가 어렵다. 제도 시행 후 수요의 지역 이전이 기대만큼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것이 신호 자체가 약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요소가 신호를 상쇄해서인지 구분할 방법이 없다. 둘째, 조정 규칙을 세우기 어렵다. 무엇을 얼마나 고쳐야 하는지 판단할 근거가 항목 안에 남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 균형성장 요소는 개정될 수 있는 정책지표에 연동되는데, 15년에서 20년을 내다보는 입지 투자에 활용되려면 인하 폭 가운데 어느 부분이 계통 여건에서 오고 어느 부분이 정책 지정에서 오는지를 사업자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법적 근거도 같은 점을 시사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5조는 목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고려 요소로 송전·배전 비용을 들고 있다. 수요 분산이나 전력자급률은 조문에 직접 나타나지 않는다. 세 가지 기준을 나란히 두면서 법적 근거와의 관계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제도의 안정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보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지역별 조정요금을 고시와 약관에서 구성요소별로 분해하여 표기하는 방안이다. 항목 자체를 나누지 않더라도 산출 내역을 공개하는 것만으로 상당 부분 해소된다. 둘째, 구성요소별로 부담 주체와 회계를 구분하여 보이는 방안이다. 재원 구조가 이미 둘로 나뉘어 있으므로 추가적인 부담 없이 가능하다. 셋째, 구성요소별로 재검토 주기와 조정 규칙을 달리 정하는 방안이다. 원가 요소는 망 투자 계획에, 신호 요소는 수급 전망에 연동하고, 정책 요소에는 별도의 일몰과 재검토 규정을 두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2) 도매 지역별 가격제와의 정합

할인 재원의 상당 부분이 도매 지역별 가격제 도입에 따른 전력 구입비용 절감분이다. 이는 두 가지를 뜻한다. 하나는 소매 할인의 지속 가능성이 도매 제도의 시행 시기와 실제 가격차 규모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구입비용 절감이 곧 비수도권 발전사업자의 판매 수입 감소를 의미하므로, 소매 요금 인하의 상당 부분이 발전 부문에서 수요 부문으로 이전되는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다.

여기서 두 제도의 지역 구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도매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2개 권역으로 논의되는 반면 소매는 11개 지역으로 나뉜다. 같은 광역권 안에서도 도매가격 노출과 소매요금 여건이 서로 다른

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다. 또한 도매 권역 간 가격차는 혼잡 상황에 따라 변동하며 송전망이 보강되면 축소되는 성질을 갖는다. 혼잡이 완화되어 도매 가격차가 줄어들면 소매 할인 재원도 함께 줄어든다.

그렇다면 재원이 설계 당시의 가정과 달라질 경우 할인 폭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관한 규칙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조정하지 않는다면 부족분은 다른 재원이나 다른 소비자의 부담으로 메워질 것이고, 조정한다면 사업자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요금이 바뀌게 된다. 어느 쪽이든 미리 정해 두는 편이 낫다.

(3) 요금 부담의 귀착

산업용 요금이 2조 8,000억원 규모로 줄어들면 그만큼의 부담은 어딘가로 옮겨간다. 설계(안)은 도매시장 효율화, 한전 자체 부담, 정부 재정지원이라는 세 경로를 제시하고 있는데, 각 경로가 최종적으로 누구의 부담으로 귀결되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도매시장 효율화분은 앞서 보았듯 상당 부분 비수도권 발전사업자의 수입 감소에서 나온다. 한전 자체 부담은 총괄원가 회수를 통해 장기적으로 다른 소비자의 요금과 연결된다. 재정지원은 조세 부담이다.

이를 밝히는 것은 제도를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다. 요금 조정은 언제나 누군가의 부담을 수반하며, 그 경로가 투명하게 설명될 때 제도가 오래 유지된다. 특히 이번 개편은 산업용에 먼저 적용되고 이후 확대 여부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는데, 확대 논의는 결국 부담 배분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시행 초기에 귀착 구조를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의 논의를 훨씬 수월하게 만든다.

맺음말

전기요금은 원가를 회수하는 수단인 동시에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신호다.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는 오랫동안 전자에 무게를 두어 왔고, 지역에 관한 신호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이번 개편은 입지에 관한 신호를 처음으로 요금 체계 안에 담은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송전비용을 지역별로 구분해 반영하기로 한 것은 원가주의의 관점에서도 진전이다.

동시에 이번 설계(안)은 여러 목표를 하나의 항목에 담았다. 당장의 시행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무엇을 얼마나 조정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시점이 반드시 온다. 그때를 위해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다. 산정 근거를 구성요소별로 공개하는 것, 도매 제도 및 망요금 체계 개편과의 연동 규칙을 미리 정해 두는 것, 그리고 정기적인 재검토와 효과 평가의 틀을 제도 안에 명시하는 것이다. 제도의 성패는 시행 여부가 아니라 시행 이후의 조정 체계에서 갈릴 것이다.

참고문헌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전력공사. (2026.8.26.).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 방안. 공청회 발표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8.26.). 산업용 전기요금, 11개 지역별 차등 반영...남부 최대 10% 저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5조(지역별 전기요금).

Department for Energy Security and Net Zero. (2025.7.). Review of Electricity Market Arrangements: Decision on locational pricing.

Svenska kraftnät. Electricity bidding areas in Sweden. <https://www.svk.se/> (검색일: 2026.9.12.)

Tinbergen, J. (1952). On the Theory of Economic Policy. North-Holland.

1. 국제 에너지 가격

국제 에너지 시장

□ 8월 국제 유가, 연료탄 가격, 가스 가격(JKM)은 전월 대비 각각 15.6%, 0.4%, 15.2% 상승

- 8월 국제 유가는 미국-이란간 갈등 고조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로 인해 전월 대비 상승
 - 7월 12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선언 이후 미국과 이란 간 외교적 대치가 장기화되고, 8월 9일 이란의 아랍에미리트 유조선 공격 등으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리스크가 크게 증가하여, 8월 21일 국제 유가는 배럴당 97.8달러까지 상승
- 국제 연료탄 가격은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인한 발전용 연료탄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인도의 연료탄 자급률 상승으로 인해 전월 대비 0.4% 상승에 그침
- 국제 가스 가격의 경우 JKM, TTF는 전월 대비 각각 15.2%, 17.1% 상승, Henry Hub는 전월 대비 5.8% 하락
 - 동아시아 LNG 가격 지표인 JKM과 유럽 가스 가격 지표인 TTF는 미국-이란 간 갈등 심화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와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로 인해 전월 대비 상승
 - 미국 내 천연가스 가격 지표인 Henry Hub는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미국 내 원유 채굴 증가로 미국 천연가스 생산량이 증가하여 전월 대비 5.8%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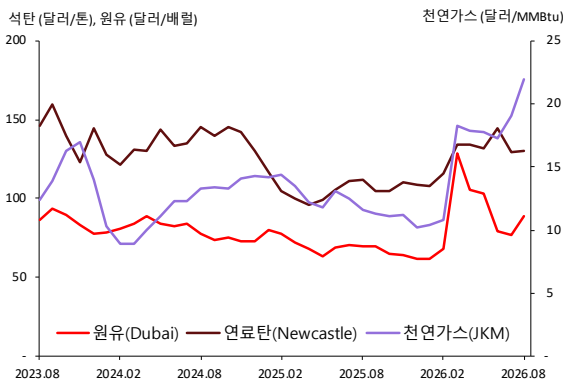
국제 에너지 가격

	2023 년	2024 년	2025 년	2026 년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원유 (달러/배럴)	82.1 (-14.8)	79.6 (-3.0)	69.4 (-12.8)	128.5 (87.9)	105.7 (-17.8)	103.1 (-2.4)	79.5 (-23.0)	76.7 (-3.4)	88.8 (15.6)
석탄 (달러/톤)	174.7 (-51.1)	135.6 (-22.3)	106.3 (-21.6)	134.6 (16.1)	134.5 (-0.1)	132.2 (-1.7)	144.4 (9.2)	129.6 (-10.2)	130.1 (0.4)
천연가스 (달러/MMBtu)									
Henry Hub	2.7 (-59.1)	2.4 (-9.4)	3.6 (50.2)	3.0 (-2.9)	2.7 (-11.7)	2.9 (9.4)	3.2 (9.0)	2.9 (-8.2)	2.8 (-5.8)
TTF	13.0 (-67.6)	11.0 (-15.9)	11.9 (8.8)	17.8 (58.8)	15.3 (-14.0)	16.1 (5.1)	15.2 (-5.8)	18.1 (19.1)	21.2 (17.1)
JKM	14.4 (-57.4)	11.9 (-17.7)	12.3 (3.1)	18.3 (68.8)	17.9 (-1.9)	17.7 (-0.9)	17.3 (-2.4)	19.1 (10.2)	22.0 (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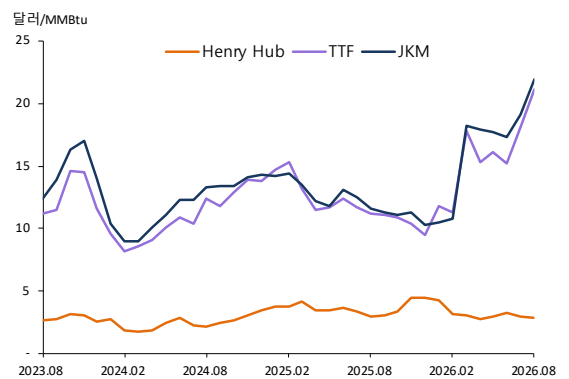
주: 원유는 두바이유, 석탄은 호주 뉴캐슬 연료탄 기준. 석탄과 천연가스는 선물 가격. ()는 전월/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석유공사, World Bank, CME Group

국제 에너지 가격



국제 천연가스 가격



국내 에너지 수입 가격

□ 7월 원유, 석탄 수입 단가는 전월 대비 각각 10.7%, 1.4% 하락, LNG 수입 단가는 전월 대비 19.6% 상승

- 7월 원유 수입 단가는 중동전쟁 종전협상 진행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전월 대비 대폭 하락
 - 6월 17일 미국-이란 종전 양해각서 서명으로 인한 국제 유가 하락은 7월 원유 수입 단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
 - 7월 12일 미국과 이란간 갈등 재점화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이 재봉쇄되었으나, 7월 중순 이후의 국제 유가 상승이 7월 원유 수입 단가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
- ※ 6월 17일 기준 배럴당 79.6달러였던 국제 원유 가격은 7월 23일 기준 배럴당 92.2달러까지 상승
- 석탄 수입 단가는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은 연료탄 수입 비중 증가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1.4% 하락
 - 국제 연료탄 가격은 세계 최대 연료탄 수출국인 인도네시아의 수출 제한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4% 상승
- LNG 수입 가격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중동산 LNG 공급 차질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19.6% 상승
 - 7월 중 카타르산 LNG 수입은 일시적으로 재개되었으나, 7월 LNG 수입량 중 중동산 LNG 비중은 3.8%에 불과
- 7월 프로판, 부탄 수입 가격은 전월 대비 각각 14.3%, 18.7% 하락
 - 납사 가격 급락으로 인해 부탄 대체 수요가 감소하여 부탄 수입 가격은 전월 대비 하락
 - 사우디 아람코 프로판 및 부탄 계약 가격은 각각 1톤당 580달러, 600달러로 전월 가격인 1톤당 760달러, 820달러에 비해 각각 23.7%, 26.8%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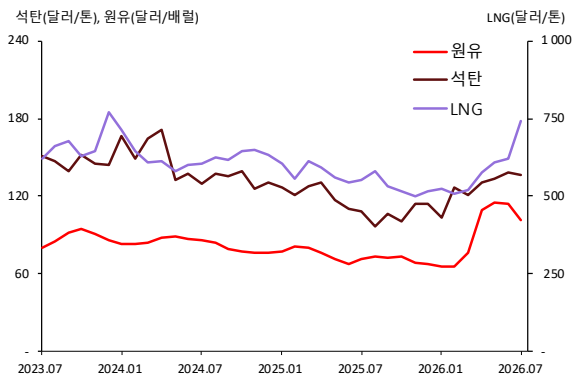
국내 수입 가격

	2023 년	2024 년	2025 년	2026 년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원유 (달러/배럴)	85.9 (-16.1)	82.8 (-3.6)	73.3 (-11.4)	65.2 (-0.9)	75.8 (16.2)	109.0 (43.9)	114.7 (5.2)	114.1 (-0.5)	101.9 (-10.7)
석탄 (달러/톤)	168.7 (-25.3)	142.3 (-15.7)	113.9 (-20.0)	126.4 (22.9)	120.2 (-4.9)	129.5 (7.7)	132.1 (2.0)	137.9 (4.4)	136.0 (-1.4)
LNG (달러/톤)	780.5 (-26.0)	628.5 (-19.5)	555.5 (-11.6)	507.5 (-3.2)	519.1 (2.3)	575.0 (10.8)	610.2 (6.1)	622.0 (1.9)	743.9 (19.6)
프로판 (달러/톤)	618.5 (-18.2)	620.8 (0.4)	552.8 (-11.0)	565.3 (4.8)	673.0 (19.1)	825.6 (22.7)	803.4 (-2.7)	824.3 (2.6)	706.8 (-14.3)
부탄 (달러/톤)	607.9 (-19.7)	628.3 (3.4)	553.6 (-11.9)	601.2 (6.3)	685.7 (14.1)	932.4 (36.0)	1 008.9 (8.2)	858.3 (-14.9)	698.1 (-1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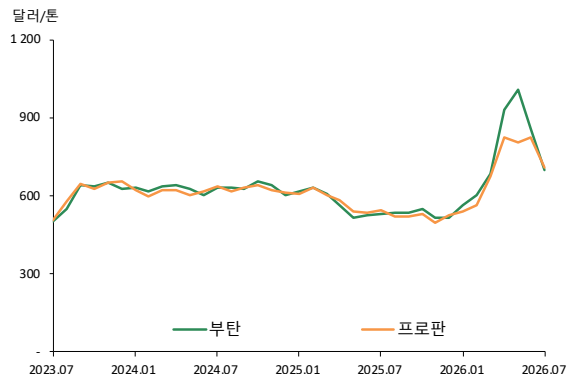
주: ()는 전월/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석유공사, 한국무역협회

국내 에너지 수입 단가



국내 LPG 수입 단가



국내 에너지 가격

석유제품 가격

□ 8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7월 말 국제유가의 상승을 환율 하락이 상쇄하여 전월 대비 각각 1.0%, 1.1% 하락

- 지난 7월 12일 이란 혁명수비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로 인한 7월 말 국제유가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8월 국내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은 소폭 하락
 - 8월 중 미국-이란 간 갈등이 격화되어 국제 유가 관련 리스크가 증가하였으나 정부는 물가 및 민생 부담을 고려하여 8월 22일 발표된 최고가격제 9차 고시에서 휘발유, 경유 최고 가격을 8차 고시 가격으로 동결
 - ※ 8월 22일 9차 고시 기준 휘발유 및 경유의 최고 가격은 각각 리터 당 1,784원, 1,773원을 적용
- 원/달러 환율이 1,400원 대 초반으로 내려간 8월 대비 환율은 국내 석유제품 가격 하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
-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11월까지 연장 시행하고, 휘발유와 경유 세금 인하율을 각각 15%, 25%로 적용
 -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 당 698원, 경유 유류세는 리터 당 436원으로 적용
- SK가스과 E1 등의 LPG 공급사의 가격 동결로 프로판 가격은 전월 대비 0.1% 상승, 부탄 가격은 3.0% 하락
 - 7월 사우디 아람코 계약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누적손실을 이유로 동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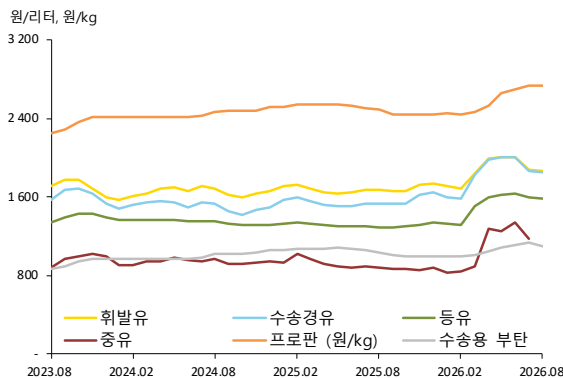
국내 석유제품 가격

	2023 년	2024 년	2025 년	2026 년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휘발유 (원/리터)	1 643.3 (-9.3)	1 646.8 (0.2)	1 680.3 (2.0)	1 836.4 (8.8)	1 986.1 (8.1)	2 011.2 (1.3)	2 004.7 (-0.3)	1 882.4 (-6.1)	1 863.2 (-1.0)
수송용 경유 (원/리터)	1 558.4 (-15.5)	1 502.6 (-3.6)	1 552.9 (3.3)	1 829.0 (15.2)	1 979.3 (8.2)	2 005.7 (1.3)	1 998.7 (-0.4)	1 867.9 (-6.5)	1 846.6 (-1.1)
등유 (원/리터)	1 399.5 (-5.9)	1 344.7 (-3.9)	1 312.2 (-2.4)	1 502.7 (14.5)	1 596.3 (6.2)	1 625.7 (1.8)	1 631.5 (0.4)	1 596.4 (-2.2)	1 582.2 (-0.9)
중유 (원/리터)	931.5 (-16.5)	938.5 (0.8)	901.2 (-4.0)	893.6 (7.1)	1 274.0 (42.6)	1 253.9 (-1.6)	1 335.1 (6.5)	1 171.5 (-12.3)	-
프로판 (원/kg)	2 372.0 (-4.4)	2 446.2 (3.1)	2 501.1 (2.2)	2 470.5 (1.0)	2 525.1 (2.2)	2 661.3 (5.4)	2 690.6 (1.1)	2 729.2 (1.4)	2 732.1 (0.1)
수송용 부탄 (원/리터)	957.4 (-11.5)	995.3 (4.0)	1 044.1 (4.9)	1 011.7 (1.4)	1 039.0 (2.7)	1 089.5 (4.9)	1 107.3 (1.6)	1 134.3 (2.4)	1 100.3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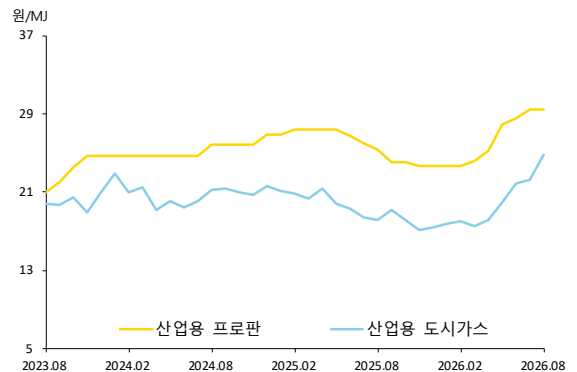
주: 휘발유, 경유, 부탄은 주유소/충전소 가격, 등유는 실내등유 가격, 중유는 대리점 가격, 프로판은 판매소 가격. ()는 전월/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석유공사

국내 석유제품 가격



산업용 프로판 도시가스 가격 비교



도시가스 및 열에너지 요금

□ 8월 도시가스 요금은 주택용, 일반용, 업무난방용, 산업용 모두 전월 대비 상승

- 주택용과 일반용 도매요금의 경우 2024년 7월 인상 이후 변화가 없으며, 소매요금은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상승으로 인하여 전월 대비 각각 0.7%, 0.8% 상승

※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서울지역 도시가스 요금표를 기준으로 함

- 업무난방용,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가 전월 대비 2.3원/Mcal 상승한 22.3원/Mcal로 조정되어 전월 대비 각각 10.0%, 11.2% 상승

※ 원료비는 소매요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원료비는 2개월(각 홀수월에 산정), 상업용(업무난방용, 산업용 등) 원료비는 1개월 주기로 산정. 공급비용은 총괄원가에서 원료비를 제외한 원가로서 1년에 1회(도매 5월, 소매 7월) 조정

□ 지역난방 열요금은 2024년 7월에 2023년 연료비 정산에 따른 인상요인 반영으로 10.6% 인상된 후 줄곧 동결

- 열요금은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가계 부담 등을 고려하여 2024년 7월 인상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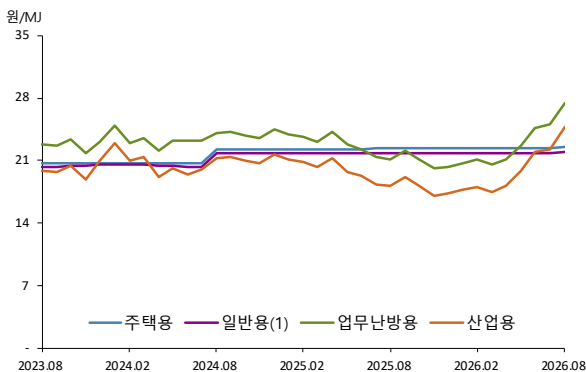
도시가스 및 열에너지 요금

	2023 년	2024 년	2025 년	2026 년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도시가스 (원/MJ)									
주택용	20.4 (22.8)	21.4 (4.9)	22.3 (4.4)	22.4 -	22.4 -	22.4 -	22.4 -	22.4 -	22.5 (0.7)
일반용(1)	20.1 (23.2)	21.0 (4.6)	21.8 (3.9)	21.9 -	21.9 -	21.9 -	21.9 -	21.9 -	22.0 (0.8)
업무난방용	26.0 (-9.5)	23.6 (-8.9)	22.2 (-6.2)	20.5 (-2.5)	21.2 (3.1)	22.7 (7.0)	24.7 (8.8)	25.0 (1.4)	27.5 (10.0)
산업용	23.3 (-10.1)	20.9 (-10.5)	19.2 (-7.8)	17.5 (-2.9)	18.2 (3.6)	19.9 (9.7)	21.9 (10.0)	22.3 (1.6)	24.8 (11.2)
열에너지 (원/Mcal)									
주택용	96.1 (29.5)	107.0 (11.3)	112.3 (5.0)	112.3 -	112.3 -	112.3 -	112.3 -	112.3 -	112.3 -
업무용	124.8 (29.5)	138.9 (11.3)	145.8 (5.0)	145.8 -	145.8 -	145.8 -	145.8 -	145.8 -	145.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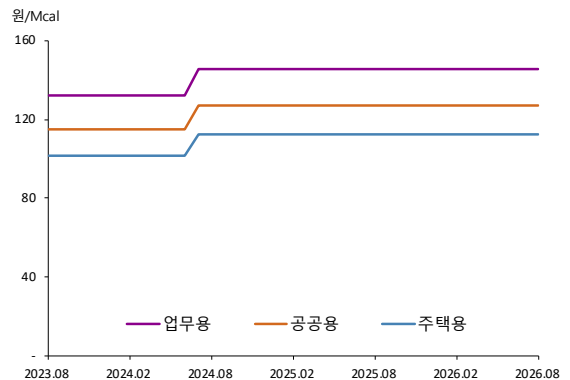
주: 월별 가격은 월말 가격을 기준으로 함. 열 요금은 난방용 단일요금 기준(부가세, 기본요금 제외) ()는 전월/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서울도시가스,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 요금



열에너지 요금



전기 요금 및 연료비 단가

□ 8월 전기요금은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모두 전월 수준을 유지

- 주택용 전력량 요금, 일반용 여름철 전력량요금은 2023년 5월 요금 조정 이후 동일 수준 유지, 산업용 여름철 전력량요금도 2024년 10월 요금 조정 이후 동일 수준 유지
- 2026년 3분기 연료비조정요금은 kWh당 -3.4원으로 산정되었으나, 정부는 한전의 누적 원가 미회수 부담 등을 고려하여 2026년 2분기와 동일한 5.0원을 적용
- 기후환경요금도 2023년 1월 인상 이후 kWh당 9.0원을 유지함에 따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을 반영한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요금은 전월 수준을 유지

□ 8월 LNG, 유연탄, 원자력 발전 연료비 단가는 각각 14.4%, 7.4%, 0.9% 상승

- LNG와 유연탄의 발전 연료비 상대 단가(LNG/유연탄)는 1.73으로 전월 대비 6.5%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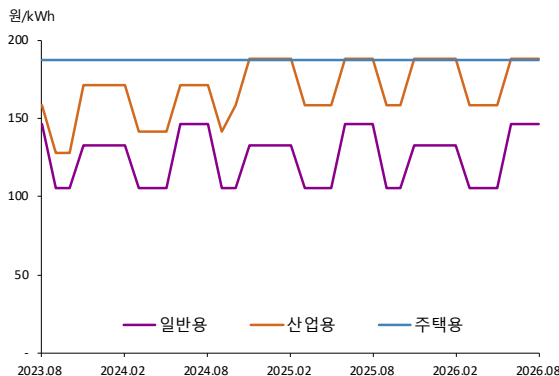
전기요금 및 발전 연료비 단가

	2023 년	2024 년	2025 년	2026 년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전기요금 (원/kWh)									
주택용	185.4 (17.9)	188.0 (1.4)	188.0 -	188.0 -	188.0 -	188.0 -	188.0 -	188.0 -	188.0 -
일반용	122.4 (29.9)	125.0 (2.2)	125.0 (-0.0)	105.9 (-20.4)	105.9 -	105.9 -	146.4 (38.2)	146.4 -	146.4 -
산업용	145.5 (34.5)	163.6 (12.5)	176.2 (7.7)	158.8 (-15.9)	158.8 -	158.8 -	188.8 (18.9)	188.8 -	188.8 -
발전 연료비단가 (원/kWh)									
LNG	179.6 (-12.3)	141.1 (-21.4)	124.1 (-12.0)	114.9 (-3.3)	120.4 (4.8)	127.4 (5.8)	136.2 (7.0)	141.8 (4.1)	162.3 (14.4)
유연탄	101.0 (-8.5)	76.3 (-24.5)	73.7 (-3.4)	75.8 (6.3)	75.2 (-0.9)	74.9 (-0.3)	83.9 (12.0)	87.2 (3.9)	93.6 (7.4)
원자력	6.37 (0.2)	6.41 (0.6)	6.39 (-0.3)	6.46 (0.2)	6.47 (0.1)	6.48 (0.1)	6.49 (0.2)	6.50 (0.2)	6.55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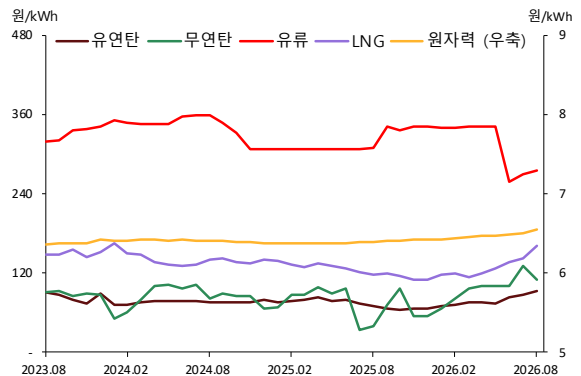
주: 전기 요금은 주택용(고압), 2 구간 전력량 요금, 일반용(갑, 저압), 산업용(을, 고압 B 중간부하)을 사용하며 월말 가격을 기준으로 함. ()는 전월/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계약종별 전기 요금



에너지원별 연료비 단가



SMP 및 REC 가격

□ 8월 계통한계가격(SMP)은 전월 대비 10.9% 상승²

- 전국 SMP는 전월 대비 10.9%, 육지 SMP는 10.9%, 제주 SMP는 전월 대비 11.2% 상승

※ 계통한계가격은 한전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입하는 가격이며, 시간대별로 전력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투입되는 발전기의 발전비용으로 산정

□ 8월 REC 현물 가격은 7.09만원/REC로 전월 대비 1.0% 하락

- REC 거래량은 211.9만 REC로 전월 대비 8.5% 감소, 거래대금은 1,503.0억 원으로 전월 대비 9.4% 감소
- 2026년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의무비율은 15.0%로 전년 대비 1.0%p 상승
 - 2026년 REC 발급량은 9,429만 REC로 2025년 RPS 의무공급량 대비 7.9%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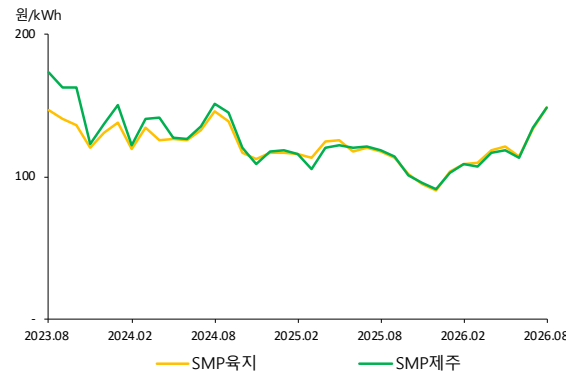
SMP 및 REC 가격

	2023 년	2024 년	2025 년	2026 년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SMP(통합) (원/kWh)	167.1 (-15.6)	128.4 (-22.9)	112.7 (-11.9)	110.0 (1.4)	118.9 (8.1)	121.3 (2.0)	114.1 (-6.0)	133.8 (17.3)	148.4 (10.9)
육지	167.0 (-15.4)	128.3 (-22.9)	112.7 (-11.9)	110.0 (1.4)	118.9 (8.1)	121.4 (2.0)	114.1 (-6.0)	133.8 (17.2)	148.4 (10.9)
제주	176.9 (-30.3)	133.5 (-24.3)	112.5 (-15.4)	106.8 (-1.6)	117.2 (9.8)	118.3 (0.9)	113.4 (-4.1)	134.1 (18.2)	149.1 (11.2)
SMP 결정 비중 (%)									
LNG	82.5	93.3	83.3	91.4	98.3	96.1	64.7	77.8	-
유연탄	14.9	6.1	16.1	8.2	1.7	3.9	34.2	21.8	-
유류	2.4	0.1	0.1	0.0	0.0	0.0	0.0	0.0	-
REC 현물가격 (천원/REC)	72.8 (27.9)	76.2 (4.6)	71.9 (-5.6)	70.4 (-1.2)	71.6 (1.7)	71.1 (-0.7)	72.0 (1.3)	71.6 (-0.5)	70.9 (-1.0)
REC 거래량 (만 REC)	1 446.1 (5.2)	1 372.1 (-5.1)	1 879.5 (37.0)	190.7 (51.8)	226.4 (18.7)	198.8 (-12.2)	259.3 (30.4)	231.6 (-10.7)	211.9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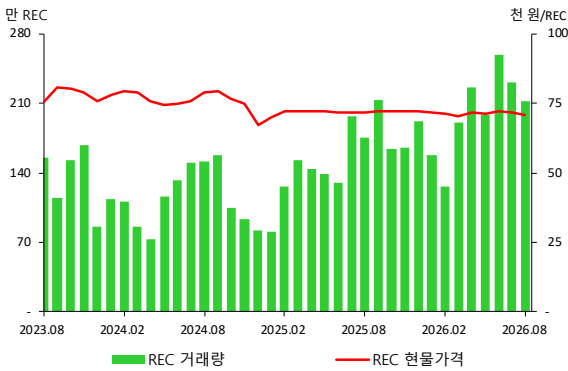
주: ()는 전월/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전력거래소

SMP 가격



REC 현물가격 및 거래량



² 당월 호를 작성하는 시점에 8월 SMP 결정 비율 통계가 발표되지 않아 연료비 단가 변화 외 추가적 요인을 파악하기 힘든 상황임

일차에너지소비 및 최종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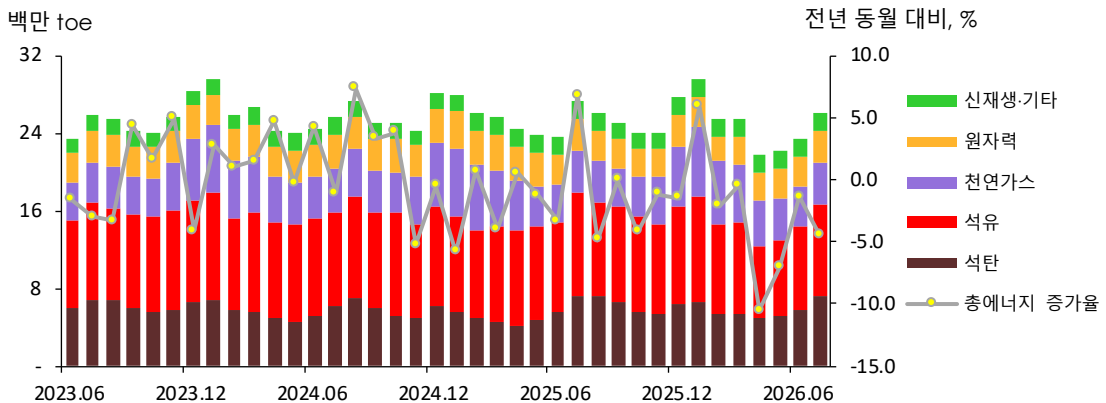
□ 7월 일차에너지 소비는 석탄, 가스, 원자력의 증가에도 석유, 신재생·기타의 감소로 전년 동월 대비 4.4% 감소

- 석탄 소비는 산업 부문 감소를 발전 부문 증가가 상쇄하며 전년 동월 대비 0.6% 증가. 산업 부문은 철강 외 업종의 무연탄 소비가 급감하며 1.7% 감소. 발전 부문은 신재생·기타 감소를 석탄이 대체하며 2.4% 증가.
- 가스 소비는 건물용 감소에도 발전용, 산업용이 늘며 2.6% 증가. 산업용은 석유화학 감소에도 철강, 기계류 등에서 늘며 1.5% 증가, 건물용은 근무일수 감소 등으로 1.4% 감소. 발전용은 2.5% 증가
- 석유 소비는 수송 부문의 소폭 증가에도 납사, LPG 등 석유화학 원료용 소비의 급감으로 14.6% 감소
- 원자력 발전은 계획예방정비 등으로 정지한 원전 수 1기 감소 및 새울3호기 시운전 등으로 1.5%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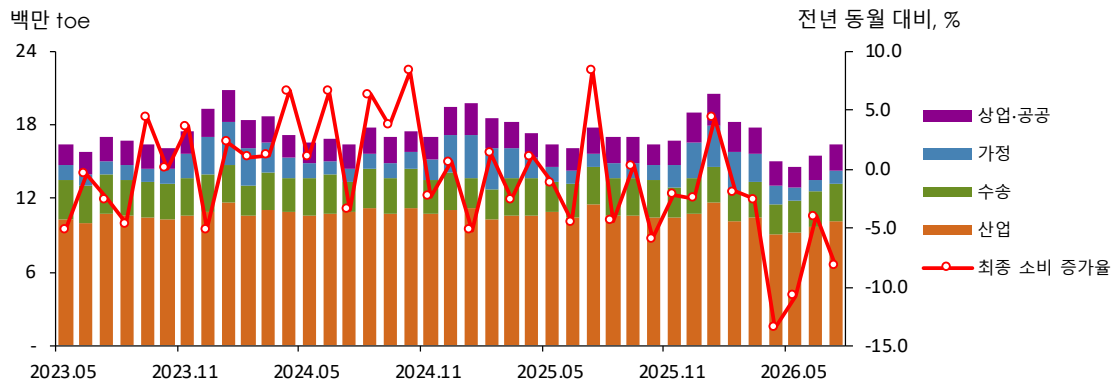
□ 에너지 최종 소비는 산업 부문 급감 및 건물 부문의 감소로 수송 부문의 소폭 증가에도 8.1% 감소

- 산업 부문 소비는 근무일수가 1.0일 감소한 가운데 철강 생산지수 반등 및 반도체업 호황으로 철강, 기계류는 증가했으나, 석유화학 원료용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다시 확대되며 12.3% 감소
- 수송 부문 소비는 화물 수요 확대 등에 따른 경유 소비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1.3% 증가
- 건물 부문 소비는 기온 효과 등에 따른 냉방수요 감소로 가정 및 상업 부문에서 모두 줄며 2.3% 감소
- 에너지원별 최종 소비는 가스, 열을 제외한 모든 에너지원에서 감소

일차에너지 소비 및 증가율 추이



최종에너지 소비 및 증가율 추이



<부록> 에너지 가격 및 수급 통계

국제 에너지 가격

	2024 년		2025 년				2026 년			
			1~8 월	6 월	7 월	8 월	1~8 월	6 월	7 월	8 월
원유 (달러/배럴)										
WTI	75.7 (-2.4)	64.8 (-14.4)	67.1 (-14.6)	67.3 (10.5)	67.2 (-0.1)	64.0 (-4.8)	82.0 (22.2)	81.8 (-17.0)	79.2 (-3.1)	82.5 (4.1)
Dubai	79.6 (-3.0)	69.4 (-12.8)	71.5 (-13.5)	69.3 (8.7)	70.9 (2.3)	69.4 (-2.1)	89.1 (24.6)	79.5 (-23.0)	76.7 (-3.4)	88.8 (15.6)
Brent	79.8 (-2.9)	68.2 (-14.5)	70.2 (-15.3)	69.8 (9.1)	69.6 (-0.4)	67.3 (-3.3)	87.0 (23.9)	84.4 (-18.6)	84.0 (-0.5)	88.1 (4.9)
수입단가 (CIF)	82.8 (-3.6)	73.3 (-11.4)	74.7 (-12.5)	67.9 (-4.6)	71.0 (4.5)	73.2 (3.0)	92.3 (23.6)	114.1 (-0.5)	101.9 (-10.7)	- -
천연가스 (달러/MMBtu)										
일본 수입 가격	12.8 (-10.7)	12.0 (-6.3)	12.4 (-3.6)	12.2 (-1.2)	11.9 (-2.1)	11.8 (-1.0)	12.8 (3.0)	11.8 (-8.5)	13.9 (17.5)	13.9 (0.7)
Henry Hub	2.4 (-9.4)	3.6 (50.2)	3.5 (61.2)	3.6 (5.3)	3.3 (-9.4)	2.9 (-12.5)	3.1 (-11.8)	3.2 (9.0)	2.9 (-8.2)	2.8 (-5.8)
NBP	10.8 (-14.3)	11.8 (8.6)	12.4 (29.4)	11.7 (3.1)	11.0 (-5.8)	10.8 (-1.5)	15.5 (24.9)	14.6 (-6.4)	17.4 (18.9)	20.8 (19.6)
TTF	10.9 (-16.1)	11.9 (9.1)	12.7 (28.4)	12.4 (6.0)	11.7 (-5.9)	11.1 (-4.5)	15.8 (24.9)	15.2 (-5.8)	18.1 (19.1)	21.2 (17.1)
JKM	11.9 (-17.8)	12.3 (3.3)	12.9 (18.4)	13.1 (10.4)	12.5 (-4.0)	11.6 (-7.2)	16.7 (29.3)	17.3 (-2.4)	19.1 (10.2)	22.0 (15.2)
수입단가 (달러/톤, CIF)	628.5 (-19.6)	555.3 (-11.6)	575.4 (-7.8)	545.4 (-2.5)	551.6 (1.1)	579.6 (5.1)	- -	622.0 (1.9)	743.9 (19.6)	- -
석탄 (달러/톤)										
호주 뉴캐슬 연료탄	135.6 (-22.4)	106.3 (-21.6)	105.9 (-20.8)	105.9 (6.3)	111.4 (5.2)	112.2 (0.8)	128.7 (21.5)	144.4 (9.2)	129.6 (-10.2)	130.1 (0.4)
수입단가 (CIF)	143.2 (-15.6)	114.4 (-20.1)	117.3 (-21.0)	110.7 (-5.5)	108.8 (-1.7)	96.4 (-11.4)	- -	138.7 (4.2)	136.3 (-1.7)	- -
석유제품 (달러/배럴)										
휘발유	93.0 (-5.8)	80.8 (-13.2)	81.1 (-16.6)	82.0 (7.2)	79.6 (-2.9)	80.1 (0.7)	111.0 (36.8)	110.1 (-16.3)	109.9 (-0.1)	114.8 (4.4)
경유	96.3 (-9.6)	87.7 (-8.9)	87.4 (-13.1)	87.0 (9.7)	90.9 (4.4)	86.4 (-5.0)	142.7 (63.3)	126.1 (-19.0)	142.4 (12.9)	156.5 (9.9)
중유	74.0 (3.1)	66.2 (-10.5)	70.1 (-7.6)	70.7 (5.1)	65.6 (-7.2)	64.2 (-2.1)	87.7 (25.1)	82.5 (-23.9)	79.7 (-3.4)	91.2 (14.4)
프로판	610.4 (1.2)	565.0 (-7.4)	599.4 (-0.6)	600.0 (-1.6)	575.0 (-4.2)	520.0 (-9.6)	634.4 (5.8)	760.0 (1.3)	580.0 (-23.7)	620.0 (6.9)
부탄	607.5 (-0.2)	546.3 (-10.1)	580.6 (-3.5)	570.0 (-3.4)	545.0 (-4.4)	490.0 (-10.1)	657.5 (13.2)	820.0 (2.5)	600.0 (-26.8)	640.0 (6.7)
납사	72.3 (4.5)	64.4 (-10.8)	65.8 (-10.1)	63.8 (4.2)	62.6 (-1.9)	62.4 (-0.3)	89.7 (36.3)	74.9 (-28.6)	88.0 (17.4)	87.0 (-1.1)

주 1 ()는 전년/전월 대비 증가율(%)

2 휘발유는 95RON, 경유는 0.001%, 중유는 고유황중유(180cst/3.5%), 프로판과 부탄은 CP 기준 값

자료: 한국석유공사, World Bank, CME, 한국무역협회

국내 에너지 가격

	2024 년		2025 년				2026 년			
			1~8 월	6 월	7 월	8 월	1~8 월	6 월	7 월	8 월
석유제품										
휘발유 (원/리터)	1 646.6 (0.2)	1 680.6 (2.1)	1 673.2 (0.9)	1 642.1 (0.3)	1 667.6 (1.6)	1 665.9 (-0.1)	1 872.1 (11.9)	2 004.7 (-0.3)	1 882.4 (-6.1)	1 863.2 (-1.0)
등유 (원/리터)	1 344.7 (-3.9)	1 312.3 (-2.4)	1 313.8 (-3.3)	1 296.1 (-0.8)	1 296.2 (0.0)	1 293.2 (-0.2)	1 521.3 (15.8)	1 631.5 (0.4)	1 596.4 (-2.2)	1 582.2 (-0.9)
경유 (원/리터)	1 502.6 (-3.6)	1 553.2 (3.4)	1 537.6 (0.9)	1 505.4 (0.2)	1 531.5 (1.7)	1 535.7 (0.3)	1 839.3 (19.6)	1 998.7 (-0.4)	1 867.9 (-6.5)	1 846.6 (-1.1)
중유 (원/리터)	938.4 (0.7)	901.9 (-3.9)	919.8 (-2.5)	874.3 (-2.5)	885.5 (1.3)	877.8 (-0.9)	1 084.5 (17.9)	1 335.1 (6.5)	1 171.5 (-12.3)	- -
프로판 (원/kg)	2 446.1 (3.1)	2 501.3 (2.3)	2 529.8 (4.3)	2 533.5 (-0.5)	2 506.6 (-1.1)	2 492.0 (-0.6)	2 587.7 (2.3)	2 690.6 (1.1)	2 729.2 (1.4)	2 732.1 (0.1)
부탄 (원/리터)	995.2 (3.9)	1 044.2 (4.9)	1 066.8 (9.1)	1 074.5 (-1.3)	1 053.5 (-2.0)	1 037.5 (-1.5)	1 059.8 (-0.7)	1 107.3 (1.6)	1 134.3 (2.4)	1 100.3 (-3.0)
도시가스 (원/MJ)										
주택용	21.4 (4.9)	22.3 (4.4)	22.3 (6.6)	22.3 -	22.4 (0.3)	22.4 -	22.4 (0.3)	22.4 -	22.4 -	22.5 (0.7)
일반용(1)	21.0 (4.6)	21.8 (3.9)	21.8 (5.8)	21.8 -	21.9 (0.3)	21.9 -	21.9 (0.3)	21.9 -	21.9 -	22.0 (0.8)
업무난방용	23.6 (-9.1)	22.2 (-6.1)	22.8 (-2.6)	22.3 (-2.0)	21.4 (-4.1)	21.2 (-1.0)	22.9 (0.4)	24.7 (8.8)	25.0 (1.4)	27.5 (10.0)
산업용	20.8 (-10.6)	19.2 (-7.7)	19.9 (-3.7)	19.3 (-2.3)	18.4 (-4.8)	18.2 (-1.2)	20.0 (0.7)	21.9 (10.0)	22.3 (1.6)	24.8 (11.2)
열 (원/Mcal)										
주택용	106.9 (11.3)	112.3 (5.0)	112.3 (7.7)	112.3 -	112.3 -	112.3 -	112.3 -	112.3 -	112.3 -	112.3 -
업무용	138.8 (11.3)	145.8 (5.0)	145.8 (7.7)	145.8 -	145.8 -	145.8 -	145.8 -	145.8 -	145.8 -	145.8 -
공공용	121.3 (11.3)	127.3 (5.0)	127.3 (7.7)	127.3 -	127.3 -	127.3 -	127.3 -	127.3 -	127.3 -	127.3 -

주 : ()는 전년/전월 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석유공사, 서울도시가스, 한국지역난방공사

국내 전력 및 REC 가격

	2024 년		2025 년				2026 년			
			1~8 월	6 월	7 월	8 월	1~8 월	6 월	7 월	8 월
전기 (원/kWh)										
주택용	174.0 (1.6)	174.0 -	174.0 -	174.0 -	174.0 -	174.0 -	174.0 -	174.0 -	174.0 -	174.0 -
일반용	111.1 (2.5)	111.1 -	113.9 -	132.4 (44.1)	132.4 -	132.4 -	113.9 -	132.4 (44.1)	132.4 -	132.4 -
산업용	149.6 (13.8)	162.3 (8.5)	163.6 (11.5)	174.8 (20.7)	174.8 -	174.8 -	163.6 -	174.8 (20.7)	174.8 -	174.8 -
기후환경요금	9.0 -	9.0 -	9.0 -	9.0 -	9.0 -	9.0 -	9.0 -	9.0 -	9.0 -	9.0 -
연료비조정요금	5.0 -	5.0 -	5.0 -	5.0 -	5.0 -	5.0 -	5.0 -	5.0 -	5.0 -	5.0 -
발전 연료비 단가 (원/kWh)										
유류	342.7 (3.8)	319.1 (-6.9)	308.2 (-12.4)	307.8 (-0.0)	307.8 (0.0)	310.0 (0.7)	314.1 (1.9)	258.4 (-24.7)	269.5 (4.3)	274.6 (1.9)
LNG	141.1 (-21.6)	124.2 (-12.0)	129.3 (-9.1)	127.4 (-2.8)	120.9 (-5.1)	118.0 (-2.4)	129.9 (0.5)	136.2 (7.0)	141.8 (4.1)	162.3 (14.4)
무연탄	83.9 (-10.1)	73.4 (-12.5)	75.3 (-11.3)	96.7 (7.4)	34.5 (-64.3)	39.2 (13.8)	98.7 (31.1)	100.8 (0.5)	131.2 (30.2)	110.7 (-15.7)
유연탄	76.2 (-24.6)	73.7 (-3.3)	77.6 (2.1)	79.6 (1.0)	74.0 (-7.0)	70.9 (-4.2)	79.1 (2.0)	83.9 (12.0)	87.2 (3.9)	93.6 (7.4)
원자력	6.41 (0.6)	6.39 (-0.3)	6.38 (-0.6)	6.38 -	6.39 (0.2)	6.40 (0.2)	6.48 (1.5)	6.49 (0.2)	6.50 (0.2)	6.55 (0.8)
SMP (원/kWh)										
SMP 육지	128.3 (-23.2)	112.7 (-11.8)	119.1 (-9.1)	118.0 (-6.0)	120.4 (2.0)	117.4 (-2.5)	119.8 (0.6)	114.1 (-6.0)	133.8 (17.2)	148.4 (10.9)
SMP 제주	133.5 (-24.5)	112.5 (-15.3)	117.9 (-13.9)	120.6 (-1.4)	121.1 (0.4)	118.5 (-2.2)	118.8 (0.7)	113.4 (-4.1)	134.1 (18.2)	149.1 (11.2)
SMP 통합	128.4 (-23.2)	112.7 (-11.8)	119.1 (-9.2)	118.1 (-5.9)	120.4 (2.0)	117.4 (-2.5)	119.8 (0.6)	114.1 (-6.0)	133.8 (17.3)	148.4 (10.9)
REC										
REC 평균가격 (천원/REC)	76.2 (4.7)	71.9 (-5.6)	71.8 (-6.7)	72.0 (-0.6)	71.6 (-0.4)	71.9 (0.3)	71.3 (-0.6)	72.0 (1.3)	71.6 (-0.5)	70.9 (-1.0)
REC 거래량 (천 REC)	1 143.5 (-5.1)	1 566.2 (37.0)	1 429.9 (22.4)	1 302.5 (-5.9)	1 976.4 (51.7)	1 749.9 (-11.5)	2 003.1 (40.1)	2 592.9 (30.4)	2 316.1 (-10.7)	2 118.6 (-8.5)

주 1 ()는 전년/전월 대비 증가율(%)

2 전기요금은 주택용(고압, 201~400kWh), 일반용(갑 I, 저압), 산업용(을), 고압 B, 선택 II 중간부하) 기준

3 연간 및 월간 SMP는 시간대별 전력수요예측량으로 가중평균한 값이고, 연초 누계(ex. 1~N 월) SMP는 월간 SMP를 단순평균한 값임

자료: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일차에너지 소비

	2024 년	2025 년 p					2026 년 p			
			1~7 월	5 월	6 월	7 월	1~7 월	5 월	6 월	7 월
석탄 (백만 톤)	113.1 (-6.1)	112.3 (-0.7)	60.5 (-6.4)	7.9 (5.0)	9.0 (5.0)	11.8 (15.7)	66.8 (10.4)	8.5 (7.4)	9.6 (6.1)	11.9 (0.6)
- 원료탄 제외	89.3 (-7.3)	88.8 (-0.6)	46.9 (-8.2)	5.9 (5.2)	7.1 (6.9)	9.8 (18.4)	52.7 (12.3)	6.4 (7.8)	7.6 (7.5)	9.8 (0.4)
석유 (백만 bbl)	803.1 (3.0)	780.5 (-2.8)	455.1 (-2.1)	63.4 (-4.6)	62.4 (-7.8)	72.3 (16.2)	416.3 (-8.5)	52.0 (-18.0)	57.4 (-8.0)	61.8 (-14.6)
가스 (백만 toe)	61.0 (5.9)	60.7 (-0.6)	37.1 (1.1)	4.3 (0.2)	3.8 (-9.6)	4.3 (-7.0)	37.4 (0.9)	4.2 (-1.4)	4.2 (8.1)	4.4 (2.6)
- 천연가스 (백만 톤)	46.4 (5.7)	46.1 (-0.7)	27.8 (0.9)	3.2 (-0.3)	2.9 (-10.2)	3.2 (-7.3)	28.5 (2.6)	3.2 (-1.3)	3.1 (7.5)	3.4 (3.7)
- 도시가스 (십억 m3)	0.3 (56.3)	0.3 (21.4)	0.7 (9.5)	0.1 (29.3)	0.1 (23.2)	0.1 (15.3)	0.1 (-88.4)	0.1 (-7.8)	0.1 (34.8)	0.0 (-52.3)
원자력 (TWh)	188.8 (4.6)	184.7 (-2.2)	114.1 (6.2)	15.9 (-0.8)	15.1 (-0.1)	15.3 (-7.5)	97.6 (-14.5)	14.2 (-10.3)	14.3 (-5.3)	15.5 (1.5)
신재생·기타 (백만 toe)	19.7 (7.0)	20.9 (6.3)	12.5 (6.1)	1.8 (0.3)	1.8 (2.8)	2.0 (14.8)	12.9 (2.7)	1.8 (2.8)	1.9 (3.2)	1.9 (-5.5)
총에너지 (백만 toe)	310.8 (1.8)	306.0 (-1.6)	179.1 (-1.0)	23.8 (-1.2)	23.7 (-3.3)	27.4 (6.8)	174.3 (-2.7)	22.1 (-7.0)	23.4 (-1.4)	26.2 (-4.4)

주: p는 잠정치, ()는 전년/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 석유는 원유 및 정제원료와 석유제품 총에너지 소비를 합한 값
자료: 에너지수급통계(KEEI)

일차에너지 소비 비중

(단위 %)

	2024 년	2025 년 p					2026 년 p			
			1~7 월	5 월	6 월	7 월	1~7 월	5 월	6 월	7 월
석탄	22.1	22.3	20.6	20.2	23.2	26.0	23.3	23.4	24.9	27.5
석유	39.0	38.2	38.2	39.9	39.3	39.1	35.9	35.4	36.4	35.9
가스	19.6	19.8	20.7	18.1	16.2	15.8	21.4	19.2	17.7	16.9
- 천연가스	19.5	19.7	20.3	17.6	15.8	15.5	21.4	18.7	17.2	16.8
- 도시가스	0.1	0.1	0.4	0.5	0.4	0.3	0.0	0.5	0.5	0.1
원자력	12.9	12.9	13.6	14.2	13.5	11.9	11.9	13.7	13.0	12.6
신재생·기타	6.3	6.8	7.0	7.5	7.7	7.2	7.4	8.3	8.0	7.1
총에너지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p는 잠정치, 석유는 원유 및 정제원료와 석유제품의 일차에너지 소비를 합한 값, 가스는 천연가스와 도시가스의 일차에너지 소비를 합한 값
자료: 에너지수급통계(KEEI)

최종 소비

(단위: 백만 toe)

	2024 년	2025 년 p					2026 년 p			
			1~7 월	5 월	6 월	7 월	1~7 월	5 월	6 월	7 월
산업	131.9 (4.3)	128.6 (-2.6)	75.6 (-1.5)	10.9 (1.8)	10.4 (-3.6)	11.5 (5.8)	70.4 (-6.9)	9.2 (-15.6)	9.8 (-6.1)	10.1 (-12.3)
수송	35.2 (-1.0)	34.1 (-3.4)	19.5 (-2.9)	2.6 (-17.1)	2.8 (-13.1)	3.1 (25.0)	19.4 (-0.6)	2.6 (2.4)	2.8 (-0.5)	3.1 (1.3)
가정	22.2 (-0.5)	22.9 (2.9)	14.4 (4.8)	1.3 (8.5)	1.0 (2.5)	1.1 (3.9)	13.7 (-5.0)	1.1 (-9.6)	1.0 (-2.9)	1.1 (-3.2)
상업·공공	24.4 (1.4)	25.1 (2.6)	14.8 (3.0)	1.7 (2.3)	1.8 (2.5)	2.1 (4.9)	14.7 (-0.7)	1.7 (-0.4)	1.9 (1.9)	2.1 (-1.9)
최종 소비	213.8 (2.6)	210.6 (-1.5)	124.3 (-0.5)	16.4 (-1.2)	16.1 (-4.4)	17.8 (8.5)	118.2 (-4.9)	14.6 (-10.7)	15.5 (-4.0)	16.4 (-8.1)
석탄 (백만 톤)	47.7 (-1.6)	45.3 (-5.0)	26.5 (-3.5)	3.8 (2.6)	3.7 (-2.3)	3.8 (-1.6)	26.9 (1.3)	3.8 (2.1)	3.8 (3.0)	3.7 (-1.7)
석유제품 (백만 bbl)	796.4 (3.9)	780.7 (-2.0)	455.4 (-1.2)	64.0 (-3.3)	62.7 (-7.3)	71.6 (16.3)	413.3 (-9.2)	50.7 (-20.8)	56.4 (-10.0)	60.6 (-15.3)
- 비에너지유 제외	332.1 (-1.9)	318.5 (-4.1)	183.2 (-3.3)	23.3 (-14.6)	25.5 (-10.2)	26.8 (17.4)	180.5 (-1.5)	22.7 (-2.4)	24.3 (-4.6)	26.9 (0.4)
전기 (TWh)	536.5 (0.7)	536.7 (0.0)	309.8 (0.6)	40.1 (0.2)	41.9 (0.4)	47.7 (3.9)	308.1 (-0.6)	40.1 (-0.0)	42.5 (1.4)	46.9 (-1.7)
천연가스 (백만 톤)	3.3 (51.9)	3.7 (12.7)	2.1 (14.7)	0.3 (14.8)	0.3 (-1.5)	0.3 (11.1)	2.0 (-3.4)	0.2 (-29.3)	0.3 (-9.1)	0.3 (-2.5)
도시가스 (십억 m³)	21.3 (-1.8)	21.8 (2.3)	14.1 (3.2)	1.3 (1.8)	1.1 (-2.1)	1.1 (-3.5)	13.3 (-5.8)	1.3 (-3.9)	1.2 (4.7)	1.1 (1.0)
열·신재생·기타 (백만 toe)	11.3 (11.0)	10.5 (-7.6)	6.4 (-6.4)	0.7 (-5.9)	0.8 (-8.9)	0.8 (-4.3)	6.4 (-1.0)	0.7 (-3.3)	0.8 (1.4)	0.8 (-3.0)

주: p는 잠정치, ()는 전년/전년 동기/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 비에너지유는 원료용 프로판, 부탄 소비를 포함한 값
자료: 에너지수급통계(KEE)

최종 소비 비중

	2024 년	2025 년 p					2026 년 p			
			1~7 월	5 월	6 월	7 월	1~7 월	5 월	6 월	7 월
산업	61.7	61.1	60.8	66.4	64.6	64.8	59.6	62.8	63.1	61.9
수송	16.5	16.2	15.7	15.6	17.6	17.3	16.4	17.9	18.3	19.1
가정	10.4	10.9	11.6	7.6	6.3	6.1	11.6	7.7	6.4	6.4
상업·공공	11.4	11.9	11.9	10.4	11.5	11.8	12.4	11.6	12.2	12.6
석탄	14.3	13.8	13.7	14.8	14.7	13.8	14.7	17.0	15.7	14.8
석유제품	46.7	46.4	45.9	48.8	48.9	50.2	43.8	43.5	45.8	46.6
- 비에너지유 제외	20.0	19.5	19.0	18.3	20.6	19.4	19.7	20.0	20.4	21.3
전기	21.6	21.9	21.4	21.1	22.4	23.0	22.4	23.6	23.7	24.6
천연가스	2.0	2.3	2.2	2.4	2.4	2.4	2.2	1.9	2.2	2.5
도시가스	10.1	10.5	11.6	8.4	7.0	6.2	11.5	9.0	7.6	6.8
열·신재생·기타	5.3	5.0	5.2	4.5	4.7	4.4	5.4	4.9	5.0	4.6

주: p는 잠정치, 비에너지유는 원료용 프로판, 부탄 소비를 포함한 값
자료: 에너지수급통계(KEE)